

## 哲學 意義와 範圍 (二)

韓稚振

成人과 一個 民族에게 잇서서는 이 好奇心의 作用은 科學的 研究와 哲學的 思索에 나타난다. 理論的 驚異는 우리의 全體 生活과 同伴한다. 우리의 好奇心과 驚異는 무엇보다 새것과 異常한 것으로 因하여 激動된다.

그러나 우리가 늘 生覺하며 사라가는 가운데 過去의 因襲과 社會의 宗教的 權威에 支配되어 無意識的으로 信從하든 世界觀은 우리의 成熟한 理智的 要求를 더 滿足식히지 못하는 것을 發見하게 된다. 이러한 새에 우리는 只今 까지 疑心업시 잘 맞고 平凡한 것으로 看過하든 것을 疑心하기 始作하나니, 이는 옛[옛]날 人生觀과 宇宙觀을 新見地에서 觀察하기 새문이다. 이 平凡한 事實과 因襲에 根據한 信念과 習慣을 驚異하고 疑心하는 態度가 곧 哲學의 眞正한 發端이다.

哲學的 驚異를 發興케 하는 心理的 條件이 또 잇스니 우리의 意識을 統一하고저 하는 慾求가 그것이다. 우리 各 個人은 스스로 獨立的 自己中心의 人格인 것을 自認하나니, 이러한 自我 人格은 비록 自然과 人類와에 多端한 關係를 가지고 幼時에서 老死하기까지 自然한 發達期間 中에 만흔 變動이 되지만은 언제든지 統一된 同一한 自己인 것을 맞지 아니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周圍의 世界를 單一한 原側下에서 組織的 一體系로 看破하려고 한다. 一切 哲學的 理論의 目的과 計劃은 以上の 驚異와 統一의 心理的 原則에 根據한 것이다.

科學的 研究로 말미암아 이 世界에 對한 智識이 擴張하여 질사록 哲學의 目的인 一般 經驗의 統一은 더욱 困難하게 되었다. 그러나 科學으로써 發見한 事實과 智識 統一의 要求는 더욱 必要하게 된다. 이리하여 비록 特殊한 科學들이 哲學的 思索을 否認하고 蔑視하드라도 哲學的 智識을 要求하는 衝動은 언제든지 繼續하여 存在하리라고 斷言한다. 勿論 어느 一個 哲學的 思想이 永久히 사람의 心情을 滿足식힐 수 업겠지만은 哲學 自體는 恒常 存在할 것이다.

### 三. 哲學의 歷史的 起源

여러 文明國들은 各各 獨立하여 緻密한 哲學的 思想을 發達하였다. 十九世紀의 言語學 發達에 依하면 中國, 애굽, 波斯 特히 印度에는 深奧한 哲學的 系統이 잇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十九世紀 研究者들의 大多數는 西洋思想의 發達上 가장 意味가 깊은 哲學系統을 희랍哲學이라 하였다. 희랍思想은 只今으로부터 二千四五百年 前에 始作하여 中世紀에까지 活動하여 왔고 現代哲學의 基礎와 刺戟이 된 것이다. 그 歷史的 □□과 □□는 아직도 남아잇다. 『희랍』人들은 누구보다 먼저 只今까지도 研究하고 잇는 根本問題들을 質問하고 알려고 하였다. 그들은 只今에 使用하는 思考의 方法을 發見하였다. 이런 故로 희랍哲學의 研究는 一切 問題를 理解하는데 아즉도 大端히 必要하다. 特히 哲學을 처음 배호는 이에게는 희랍哲學은 업지 못할 것이다. 희랍哲學의 起源은 小亞細亞 西海片에 『아이오니아[이오니아]』植民地에서 되였는데 여기 住民들은 □□한 商工業으로 因하여 物質的 餘有와 時間이 만헛슴으로 研究와 思索을 獎勵하였다. 이와 가튼 周圍 環境은 哲學的 衝動의 活動을 助長하여 西紀 六百年 前부터 이 宇宙의 迷를 解結하려든 『테일니스[탈레스]』와 가튼 多數한 哲學者가 出現하게 되었다.